

# 2010에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를 다녀와서



정우섭  
위스콘신주립 밀워키대학교  
정보학과 교수  
wij3612@uwm.edu

## 들어가는 말

필자는 올해 운이 좋게도 미국도서관협회(ALA) 연례회의를 6월 말에 다녀온 후 바로 8월 초에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IFLA)에도 참석할 수 있었고 포스트 컨퍼런스(post-conference)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겨 덴마크에도 들렀다 올 수 있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회의 자체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들 나라들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가지고 갔었다.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필자는 원래 스웨덴 본회의의 포스터 세션에 참가를 하고 덴마크에서 열리는 위성회의(satellite meeting)에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IFLA 관련 “유명인사”들과의 인터뷰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 이야기도 소개하기로 한다.

## 세계 도서관계 “유명인사”들과의 인터뷰

우선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김봉희 위원장과 IFLA 현 회장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엘렌 티세(Ellen Tise)와의 인터뷰에서는 엘렌 티세 회장이 우리나라 대표단과 지난 2006년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대해 한

\* 《도서관문화》 10월호에 2010에테보리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참가 후기가 추가로 실릴 예정입니다.

찬사와 김봉희 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한 것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김봉희 위원장은 각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비슷한 조직 혹은 기존의 정부조직 내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정부조직들이 WLIC/IFLA 회의에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엘렌 티세 회장은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IFLA 내의 규정들에 따라 특별관심모임(Special Interests Group)으로 출발하여 공식적인 세션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를 알려주었다. 본 위원회의 발빠른 조치가 있다면 내년 WLIC/IFLA에서는 우리나라 주도의 정부조직 간 토론 및 발표의 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는 별도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인터뷰를 갖고 이를 내일신문 특별연재물로 기사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뒤에 언급을 하게 될 한국도서관협회 주최 한국어 참가자모임(Korean Caucus Meeting)에 참석한 엘렌 티세 회장은 아주 짧은 인터뷰에서 IFLA가 한국의 도서관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IFLA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기분 나쁘지 않은 답변을 하여 참석자들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차기 IFLA 회장인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장 잉그리드 페어런트(Ingrid Parent)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차기 회장은 현 회장의 자유 이용(Open Access)에 관한 화두를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의 2년 동안 자신의 화두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7개의 IFLA 공식 언어에 한국어를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기 회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국회도서관 부관장인 디애나 마르쿰(Deanna Marcum)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개관식에도 참석할 만큼 한국의 도서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여러 협력관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전자도서 보급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일단 그녀의 아이패드를 너무나 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도서관은 책을 빌려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소통의 장으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계속 물리적인 도서관을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서관의 문화유산 보존 역할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도서관 분야에 관심있는 독자들은 잘 알고 있을 바바라 구빈(Barbara Gubbin) 플로리다주 잭슨빌시립도서관 관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구빈 관장은 IFLA 공공도서관 세션 대표이고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의 수정판을 주도한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극구 부인하는 겸손을 보였다. 어찌보면 한국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미국의 한 도시의 도서관장처럼 보이지만 해상 교통의 요지인 제스빌시에서 관련 한국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때에는 통역하는 필자의 어깨가 으쓱해지기까지 하였다.

### 한국의 힘: 자랑스러운 점

제스빌시립도서관장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힘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 IFLA에서의 한국 대표단의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다시 한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8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회의참가 등록을 한 것으로 안다. 일본 대표단이 30여 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임에 틀림없다. IFLA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번 한국 대표단 규모에 대단히 인상적(impressive)이었다고 한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그들은 2006년 서울대회에 대한 찬사도 잊지 않았다. 아마 당분간은 그만한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한국의 힘은 우리 대표단과 한국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을 위한 한국어 참가자 모임(Korean Caucus Meeting)을 2009년부터 별도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것은 WLIC/IFLA 공식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IFLA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할 만큼 비중있는 모임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이은철 한국도서관협회 회장과 여러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포스터 세션에서도 한국인의 적극적인 참여는 눈에 띄었다. 필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여섯 개의 포스터가 전시장에 설치되었고 네 시간 동안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필자의 포스터는 공동저자가 미국에서 포스터를 보내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급하게 현지에서 프린트하여 제작한 졸작에 그쳤지만 다른 한국 참가자들은 미리미리 한국에서 전문적인 디자인과 인쇄로 준비하였기에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 한국인은 어디에 있는가: 아쉬운 점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IFLA 회의에서는 한국인들의 활약은 좀 더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이번 IFLA 회의 프로그램을 보자면 정식 세션에서 한국인 발표자는

모철민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한 명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WLIC/IFLA 회의에는 수많은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많은 세션들에 보다 많은 한국인 발표자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발표자가 한 명에 불과하므로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참여도 감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다수의 문헌정보학 학자들이 전세계로부터 와서 여러 세션에서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헌정보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자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서들도 좀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역시 간절하다. 적어도 이번 프로그램에 실린 IFLA 조직도를 보면, 현재 IFLA 이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영어는 IFLA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필요한 것이므로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이러한 국제회의, 국제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포스트 컨퍼런스(Post-conference) 이야기

필자는 IFLA 본회의가 끝난 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포스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였다. 회의 주제는 도서관의 다문화/이민자 서비스에 관한 것이었는데 필자는 공저자와 함께 다국어 검색 및 서비스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관심있는 독자들은 회의 프로그램을 참조 (<http://www.iflacopenhagen.com>)하기 바란다.

회의 장소는 밴뢰스(Vanløse)라고 하는 코펜하겐의 한 지역의 도서관이었는데 이 도서관은 문화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의 위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 도서관은 바로 지하철, 기차역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몇 분마다 기차들이 도착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도서관 안에서는 거의 기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채광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큼지막한 창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음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전철역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날 저녁에 리셉션이 있었는데 코펜하겐 시청사 안에 있는 시청도서관에서 열렸다. 고풍스러운 시청사에 걸맞게 그 도서관 역시 수백년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대표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시청 안에 있는 도서관”이 고려 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포스트 컨퍼런스가 있기 전날에는 WLIC/IFLA 한국대표단과 함께 코펜하겐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코펜하겐이 자랑하는 블랙 다이아몬드(Black Diamond)라는 애칭을 가진 덴마크국립도서관은 전문 사서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다. 100년이 넘는 구 건물과 10년이 넘는 새 건물이 바로 나란히 있는 모습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도서관의 한 면모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었다.

운하를 통해 바닷물이 흐르는 도서관 바로 앞에는 눈에 익숙하지 않은 인어공주 동상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안테르센 동화의 주인공 동상이 현재 중국 상하이 엑스포에 출타 중이어서 대신 유명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여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안테르센의 친필 원고들을 비롯하여 많은 문서들이 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실제 보지는 못하고 시청 앞에 있는 안테르센의 동상에서 사진을 찍고 지나가던 아주 오래된 아파트 건물에 안테르센이 지냈던 방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 맺는 말

결코 짧지 않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WLIC/IFLA 대회는 있을 것이므로 다음을 기약해 본다. 이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 WLIC/IFLA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봐야한다. 또한 일정을 함께 했던 많은 한국 대표단 일행들과 대회 기간 동안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여 많이 아쉬운데 이 역시 다음 회의에서 만회하고자 한다.

이번 WLIC/IFLA 회의를 위해 여행 일정을 포함하여 여러 모로 애써 주신 한국도서관협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이번호 '사서가 들려주는 해외 도서관 이야기'는 지면관계상 쉽니다.